

다시 4월,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식

양지혜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공동대표

세월호 4주기, 기억이라는 투쟁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세월호 침몰은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검토된 비용이었다. 정부는 경제적 효용을 위해 운영 제한 규제를 완화했고,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후한 선박을 부활시켰다. 이윤 앞에서 인간은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에게 펼쳐진 세계는 '깨어진 상식'의 세계였다.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국가를 보았다.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 동안, 박근혜 씨는 침몰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박근혜 씨를 움직이게 한 것은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가 아니라 최측근인 최순실 씨의 연락이었다. 언론은 '전원 구출' 오보를 낸 것으로도 모자라, 높은 조회 수의

특종을 위해 자극적이고 저열한 보도를 이어 갔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불안과 참혹함을 거름 삼아 보험 영업을 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유가족의 투쟁은 정치권의 야합에 가로막혔다. 2014년 8월, 여야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특별법을 밀실에서 야합으로 처리했다. 2015년, 간신히 결성된 세월호참사특별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여당 새누리당의 방해로 무력화되었다. 유족들이 간절히 외쳐 왔던 세월호 인양은 3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못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긴 시간을 차디찬 바다 앞에서 버텨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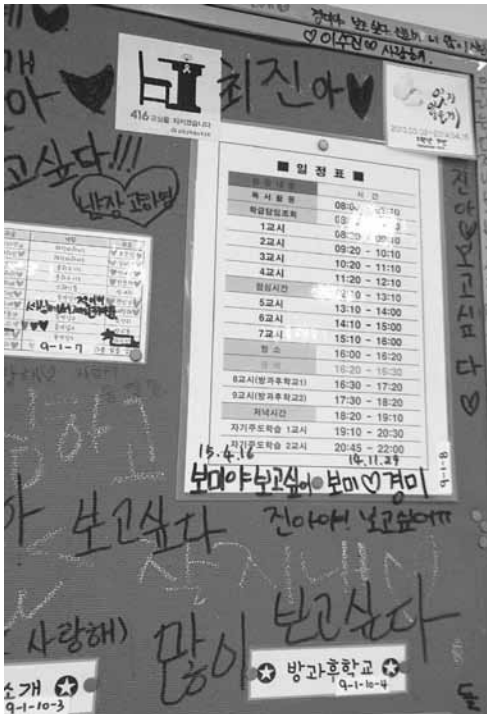
2017년 4월, 홍준표를 제외한 대선 후보자들은 모두 안산으로 달려갔다. 후보들은 저마다 미수습자 수습, 진상 규명, 추모 공원 조성 등을 약속했다. 그간 특조위를 무력화하고 “세월호특별법보다 민생 문제가 우선”(2016년 4월 18일 국민의당 최고의원 회의)이라고 밝혀 온 정치세력들이 한 일이었다. 그렇게 세월호는 ‘기억’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4월, 우리는 한 치도 변하지 않은 세상을 마주한다. 1기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한 황전원 위원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임명되었다. 황전원 위원이 조사를 거부했던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밝혀지며 진상 규명은 간신히 시작되었을 뿐이다. 모든 후보가 약속했던 추모 공원 조성은 지역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안산 화랑유원지에 위치한 정부합동분향소는 4주기 영결식을 끝으로 철거된다.

세월호는 조금도 제대로 ‘기억’ 되지 못했다. 우리는 아직 이 참사가 무엇인지조차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제나 기억하는 일은 투쟁이었다. ‘순수한 추모’만을 허용하는 세력에 맞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라’라는 요구에 맞서, ‘추모가 변질되었다’라고 선전하는

보수 언론에 맞서, 우리는 기억의 투쟁을 이어 왔다. 청년정치공동체 ‘너머’는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기억의 투쟁을 이어 가기 위해 안산을 방문했다. 교육청 옆으로 이관된 기억교실을 찾았고, 영결식이 끝나고 나면 철거될 정부합동분향소를 들렀다.

여느 때와 다르게 기억교실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기억교실은 수학여행 전 날까지 피해자들이 머물었던 흔적, 피해자를 그리워하고 참사를 추모하는 이들의 메시지로 가득했다. 한 반에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희생자가 되었다. 방명록에는 유가족들의 방문 편지가 남아 있었다. 문장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채 눈물로 얼룩진 편지가 있었다. 기억교실은 한 번 이전했던 역사가 있다. 참사 이후, 더 이상 교실을 존속할 수 없다는 학교 입장에 따라 현재 교육청 옆 건물로 이전했다. 지난 2016년 교실이 이전될 때, 세월호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유품을 옮기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책상과 걸상을 옮길 상자를 설치하기 위한 차량에는 “이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새 교실에는 유품을 놓을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참사 이후에도 유가족들은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다. 기억교실을 둘러보며, 내가 세월호 참사를 처음 만난 순간을 생각했다.

세월호 참사를 만나기 이전, 나는 때때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청소년이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는 한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체제가 한 인간을 어떻게 짓밟고 있는지를 생각했다. 그 무렵 “세월호 진상 규명”을 외치며 거리를 걸을 때에는 내리찍는 햇살, 반짝이는 이파리들이 서러웠다. 이렇게 좋은 날을 누리지 못하는, 세월호 안에 있을, 여전히 학원과 입시에 갇혀 있을 누군가들을 생각하며 슬펐다. 세월호를 바라보며, 유예되지 않는 삶을 떠올렸고, 그



리하여 청소년의 삶이 ‘피지 못한 꽃’으로 남지 않는 세상을 떠올렸다.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로 산 자의 몫을 다하고 싶었다.

그래서 기억교실에 적혀 있는 “우리 아이들”, “피지 못한 꽃”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다. ‘기억교실’로는 기억되지 못할 생존자와 다른 피해자의 삶 역시 떠올랐다. ‘아이’

이기 때문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살 권리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하면 좋겠다. 또한 그들이 살아서 인간답고 존엄하게 살지 못했을 시간들을 역시 떠올리면 좋겠다. 교실마다 벽에는 전국 대학 지도와 입시 요강이 걸려 있었다. 아침 여덟 시에 등교하여 밤 열 시에 집으로 향하는 고된 학습표도 물론 있었다. 세월호가 아 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갇혀 있었다. 신자유주의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경쟁을 위해 인간성을 뿌리칠 것을 요구받아 왔다. 세월호 이후, 참사는 끊임없이 고발되었다. 가슴기 살균제부터 구의역에서 있었던 한 청년의 죽음까지. 참사의 현장은 어디에나 있었다.

기억교실에서 나온 우리는 정부합동분향소로 향했다. 며칠이 지나면 철거될, 글을 쓰는 이 시점에서는 이미 철거되어 있을 분향소. 그 큰 분향소가 철거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수많은 영정과 영정에 채 담기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분향소에서도 기억 보존을 위한 싸움을 엿볼 수 있었다. 분향소가 있는 화랑유원지는 봄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봄 풍경 속에서 정부합동 분향소가 이질적으로 보였다. 봄이 찾아왔지만, 아직 봄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추모 공원 조성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었고 분향을 안내하고 있었다. 분향소가 철거되겠지만, 여전히 추모 공원 조성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는 분향소를 닫는 것으로, 영결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서울로 향해 세월호 4주기 문화제에 참석하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문화제였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가 정부에 관철되었다는 점에서는 희망적일 수 있겠다. 그러나 나는 ‘순수한 추모’만을 강요하며 문화제를 승인해 주었던 공권력이 생각났다. 어느 날엔가 유가족을 막아섰던 서울의 수많은 경찰이 생각났고, 그간 있었던 문화제에서의 잔인한 진압들, 합심해서 진상 조사를 가로막던 정치권, 유가족을 모욕하는 보수 세력, 참사를 자극적으로 전시하는 언론, 집회에 나가거나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학교, 이 와중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된 규제 완화와 또 다른 참사, 이런 것들이 생각났다. “우리는 여전히 4월 15일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마무리 집회에서 어떤 우리 회원의 발언이었다. 2014년 4월 15일과 2018년 4월 16일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리는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참사를 제대로 기억

하고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 아닐까?

새로운 상식이 필요하다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가 파면되었다. 비상식적인 권력에 분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이들이 함께 이루어 낸 결과였다. 뇌물 수수 등 많은 혐의가 고스란히 인정되었으나, 세월호 참사는 탄핵 소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적인 진압과 국가폭력, 노동자들을 바닥으로 내몬 노동 개악 등 박근혜 정권 시절 벌어진 사회적 참사들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우리는 박근혜가 파면된 광장에서 환호했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절망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왜 세월호만 안되느냐” 오열했다.

깨어진 상식의 세계에서 박근혜는 누구보다 유능한 대통령이었다. 그는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리고 살릴 것만 살리라”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이윤을 위해 인간의 자리를 삭제했다. 박근혜와 이명박이 구속되며, 지난 정권의 적폐가 속속들이 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참사 책임자’는 구속되지 않았다. 이명박의 구속 사유에는 용산 참사가 없고, 박근혜의 구속 사유에는 세월호 참사가 없다. 용산 참사의 책임자 중 한 명인 김석기 전 경찰청장은 20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세월호 참사 때 폭언을 일삼던 많은 국회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단지 부패한 정치인이나 무능한 정권의 문제가 아

니다. 세월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권이 아니라 새로운 상식이다. 진정 참사의 전통을 끊기 위해, 우리는 ‘인간이 먼저냐, 이윤이 먼저냐’라는 당연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사회에서 합의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청년정치공동체 ‘너머’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 맞서 인간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4년간 이어 갔다. 비상식적 권력을 몰아낸 자리에는 새로운 상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순수한 추모’에 가두고 변화를 향한 열망을 선거일로 미루고자 하는 세력에 맞서, 새로운 상식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다. 소수의 이윤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체제가 아닌, 참사의 전통을 잇는 정치가 아닌, 선거일에만 찾아오는 민주주의가 아닌, 새로운 합의를 만들고자 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합의의 이름을 “이윤보다 인간을”이라는 일곱 글자로 함축한 바 있다.

다시 4월이 왔다. 진상 규명은 여기서부터 시작일 것이다. 기억은 슬픔과 아픔이 모여 새로운 지평을 열 때 의미를 가진다. 4주기를 맞아, 우리는 다시 기억의 투쟁을 시작했다. 우리의 투쟁은 이윤보다 인간이 중요시되는 새로운 상식의 시대를 열 것이다. 시대